



광양시,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확대 검침 신뢰 UP

사생활 보호·수도요금 민원해소 기대

광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상수도 지능형 옥외자동검침시스템(원격검침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AMRS)이란 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를 육안에 의해 검침하지 않고 유·무선 방식으로 일정한 거리에서 디지털로 정확하게 검침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상수도 계량

기를 검침할 수 있어 잘못된 검침으로 인한 수도요금 민원 해소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눈과 비 등의 기상상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해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고 검침하거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 197가구를 대상으로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는 230세대를 신청해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했다.

또 앞으로도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일일이 개별세대 방문에 따른 측정시간 지연과 민원해소 등 수도계량기 검침 능률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동한 상수도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원격검침시스템 확대를 통해 수도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IT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4월 24일 기준 광양시 상수도계량기 수는 17,247전에 이른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양시, 여름철에도 꽃피는 시가지 조성에 ‘구슬땀’

6월 식재 목표 메리골드·맨드라미 등 4종 50만 본 육묘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종호)가 여름철에도 꽃피는 아름답고 화려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봄꽃이 핀 창원 시가지에 불구하고 여름철 꽃 육묘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육묘한 여름꽃 4종 50만 본을 주요 시가지 회관 51개소 13,544㎡, 대형화분 42개 지역 2,647개, 결이화분 3지역 1,140개 등에 29만 본을 식재한다.

또 읍·면·동에서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21만 본을 분양해 시가지 어디든지 시민들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서천 둘레꽃길 8.7km 구간에 식재되어 있는 꽃의 생육 관리와 제초작업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배 도시농업팀장은 “시가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시민들이 도심 속 시가지에서 언제든 꽃을 마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가지 회사한 둘레꽃길과 아름다운 생태하천이 조화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질병모니터요원 89명 위촉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나주시는 24일, 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89명을 위촉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관내 병·의원, 학교, 어린이집,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디중이용 시설(기관) 감염병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감염병 예방 홍보는 물론, 감염병 유형 등태 관찰, 의심환자 발생 시 보관기관에 신고 업무를 맡는 등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시는 이날 위촉식과 함께 전남도 청 정준철 결핵의사를 초청, 감염병 신고방법 및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모니터 요원의 임무, 감시활동 등 요원 역량강화 교육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니터요원의 신속한 대처가 감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며,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화순군,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온힘’

화순군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협장설습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귀농연수생에게 협장증심의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능력

을 배양하도록 단계별 실습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 귀농인과 지역 내 선도농가와의 멘토·멘티 맞춤형 영농현장설습교육을 지난 4월

부터 귀농연수생 9명이 선도농가에서 단계별 현장설습을 통해 재배기

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자가 영농 적용 실습을 하고 있다.

교류에 참여한 귀농연수생은 매 월 최대 8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선도농기는 월 40만원의 연수수당을 받게 된다.

군은 이와 관련 25일 주우희 농가(화순읍)에서 ‘귀농연수생 미마 열기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과 함께 힘찬 출발

사업구상서 다행기 워크숍 개최

순천시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구상서 다행기 워크숍’을 24일~27일까지 연속 4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2017년 국토부로부터 선정된 2개 유형(중심시가지, 일반근린형) 사업에 대한 범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대상지 주민, 지역 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토론회와의 방식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구상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실현성이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에서 중심시가지형(버스터미널 일원, 300억), 일반근린형(저진동 일원, 200억) 2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선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올해 1월부터 주민공청회, 순천시의회 의견수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국토부에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하였고, 행안부·중앙부처·시·군·구·면·동 행정부서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계획수립과정부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고 민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주체로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이번 워크숍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군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로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몇몇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화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물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체 관리 병행